

1990. 3. 14

## ‘탁아복지법’ 제정 요구

### 여성단체연합·국민운동 본부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태)는 13일 부모가 맞벌이 나간 사이 문이 잠긴 지하 셋방에서 질식사한 남매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 “정부당국은 좀더 적극적인 탁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평민당 박영숙 의원 외 69인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한 ‘탁아복지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쟁취국민운동서울본부(의장 김희선)도 13일 정부의 탁

아복지정책 부채를 규탄하면서 국회의 탁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90. 4. 25

## ‘탁아’강연 잇따라

### 도시빈민연·서울Y등

‘탁아’에 관한 각 사회단체의 연구와 강연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도시빈민의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도시빈민연구소(소장 제정구)가 5월 월례토론회의 주제를 ‘탁아법, 탁아운동’으로 잡고 한달동안 탁아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월례토론회는 그동안 △노점상 운동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진 뒤 자료집으로 묶여냈다.

도시빈민연구소쪽은 “탁아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탁아법제정이 우리사회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해 기획하고 있다”고 밝힌다. 서울 YMCA도 ‘여성과 탁아’(강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김경태 회장)를 주제로 26일 오후 7시에 여성논단을 연다.

한국여성학회(회장 강문희)도 6월22일부터 23일까지 열 ‘여성과 법’ 주제 봄철 학술대회에 ‘탁아정책과 입법안’을 포함시켰다.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원장 이영)에서는 지난해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중일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책자를 발간했으며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도 <도시영세지역 탁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펴내는 등 탁아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